



‘교회로 존재한다는 건’



- 윤재웅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건 펉박을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토양위에 더 험악한 종교법이 상정되어 통과될까 근심하고 있는 혼돈의 때, 새로운 가정 교회를 시작하는 형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To: KG & KGC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있는 형제에게.

처음 교회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말하고 싶지만 이 땅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의미를 잘 알기에
나의 일처럼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처럼 소중한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조심스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성장에, 혹은 숫자에 너무 마음두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당이라는 형식적인 건물안에 갇히지 않는 교회되도록,

교회를 건물안에 가두어 놓는 세상 법에 갇히지 않는 교회되도록,

종교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교회되도록,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는 교회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어디나 있고,

사랑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가 되어주는

11.2025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교회로

이 땅에 충만하게 존재하길 기도합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을 수록 별은 빛납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예수의 가장 밝은 빛 밝히는 교회되길,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교회되길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형제와 가족과 교회를 축복합니다.

...

복음이 희귀한 이 땅에서

그를 근심케 했던 법이 결국 통과되었고 (2025년 2월),

그 이후 최근에 여섯 교회가 (발각되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키국에서

윤재웅 드림